

절대적인 믿음 🍷

현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상황은 신뢰보다도 불신을 갖다주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보다는 의심이 더 가깝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안개와 같이 자욱하게 퍼져 있는 의심의 시대에 신뢰를 갖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의심에는 여러 가지의 의심이 있다. 과학적인 관찰에 필요한 창조적인 의심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병적인 의심도 있다. 병적인 의심에는 자신의 아내를 믿지 못하는 의처증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 주위에 이런 병적인 의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난 어린 시절에 놀기를 좋아하여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다. 개구쟁이인 데다 공부도 못하였기에 아버지가 좋아하실 리가 없었다.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인 형과는 대조적인 나는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을 때마다 담 밑에 쭈그리고 앉아 "그래 맞아, 난 다리 밑에서 주워 온 게 확실해"하며 슬피 울곤 하였다. 그때 내가 즐겨 읽었던 순정만화의 영향도 컸으리라 짐작이 된다.

지금 내가 그 때의 일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나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부모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다. 가족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내가 건강해진다.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믿으며 살자"라고 말하면 어떤 이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하며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때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내 발등이 찍히더라도 믿어주면 정말 잊을 수 없는 절친한 관계가 된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큰 사람이다. 의심과 불신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셨다. 의심하는 사람으로서 무슨 큰일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믿음이 크면 크게 이루고 믿음이 적으면 적게 이루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끌려가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겼다. 그 뒤 그가 말씀대로 살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요셉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다.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또 많은 체험을 할 때 확실해지는 것이다.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의 한 멤버로 찬양을 부르는 김 워스는 이런 간증을 하였다.

"저는 소경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10미터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 하고,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 피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기면 언제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저는 인생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와 꼭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기다보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스런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의 환경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내가 어떤 아픔 속에서 주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믿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김 워스처럼 하나님만 믿고 산다면 늘 찬양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온다.

김원태 목사/ 전 [생명의 삶] 편집주간. 저서 [십대들을 위한 수필]I,II.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제공

<http://isena.com/>